

또 '빅스텝' 밟은 미국...한미 금리 22년 만에 최대 격차

1.25%p 차이...한은,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내년 3.5% 이상 올릴 가능성도 연준 긴축속도 감소 속 원화 가치 절하 문제...기준금리 속도 조절 관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 기준금리와 격차가 22년여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에서 빅 스텝으로 긴축 속도가 줄었지만,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4%대에서 5%대로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미 금리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빅 스텝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금리 격차를 방지하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겨우 진정된 물가까지 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 "당분간 긴축 기조"...이번 인상이 최종 금리 5% 넘을 듯=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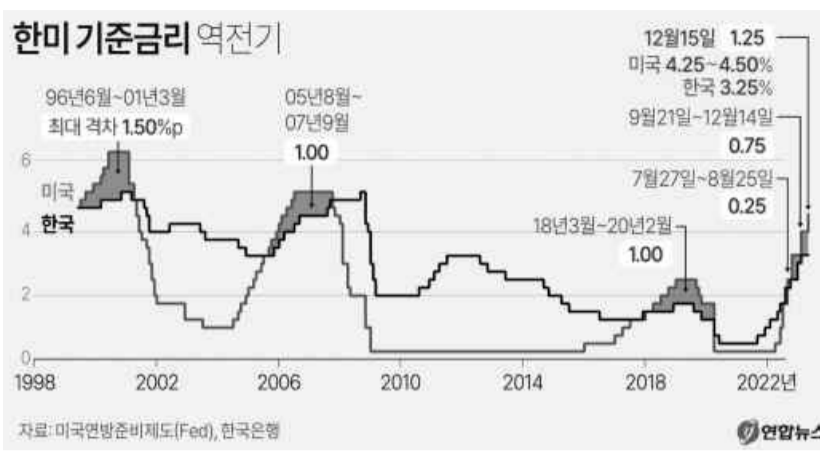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에서 4.25~4.50%로 0.50%포인트 올렸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1%)이 10월(7.7%)과 시장 전망치(7.3%)를 모두 밑돌자 6·7·9·11월에 이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피하고 빅 스텝으로 보폭을 줄였다.

하지만 긴축 속도만 다소 더뎠을 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내년 금리의 중간값은 5.1%로 전망됐다. 앞서 9월의 4.6%보다 오히려 0.5%포인트나 높아졌다.

결국 연준이 '조금 천천히, 그러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오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은 내년 3.5%에서 그치면 '역대 최대' 1.50%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도=연준의 빅 스텝으로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벌어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1996년 6월~2000년 5월(한·미 금리 역전기) 1996년 6월~2001년 2월

년 3월) 당시 우리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최대 1.50%포인트 높은 시기가 6개월(2000년 5~10월)이나 이어졌는데, 이후로는 이날 1.25%포인트가 최대 격차 기록이다.

더구나 점도표에 찍은 대로 연준이 이번 인상이 최종 금리 수준을 5% 안팎까지 높일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0%p 또는 그 이상까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은과 연준이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내년 각 3.5%, 5.0%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격차는 1.50%포인트에 이르고, 한국 경제는 내년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은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 유지할 듯...빅스

텅 압박은 줄어=이에 따라 한은도 내년 1월 13일 베이비 스텝을 시작으로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3.50% 이상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와 같은 기준금리(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화가 절하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다만 연준이 긴축 속도를 줄이면, 한은도 세 번째 빅 스텝까지 동원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신용 경제 상황과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한은 입장에서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그나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상의, 경영·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75명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성과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2022년 지역기업 경영·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2년도 지역기업 경영·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지역기업 경영·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면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85개사 기업들의 126개 경영분야별 위기과제를 해소했다. 또 7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업 회생을 조기 종결했으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해 수주받은 공사도 시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자금 지원연계를 통해 공



사 진행에 도움을 주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기여하기도 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그린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

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여성벤처기업인 역량강화 송년 포럼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4일 2022년 여성벤처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송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혁명: 디지털자산 혁명'을 주제로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

센터장이 특강을 펼쳤다.

위지연 회장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는 올해 연말 지역과 국가가 처한 위험에서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를 선도해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탄소저감 걷기 운동 마무리

농협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이 탄소저감을 위한 45일간 걷기 운동을 마무리했다.

광주본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모람모람 61억 걸음'을 성황리에 끝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운동은 탄소저감 실천문화 확산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경영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행됐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대신 걷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NH 헬스케어' 모바일 앱으로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했다.

지난 10월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5일 동안 진행했다.

광주본부는 우수 참가자 10명에게 광주 대표 쌀 '빛찬들 햇쌀'과 커피 상품권을 선물했다. 이 운동은 앞으로 광주지역 14개 조합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탄소저감 실천문화 확산의 첫걸음으로 직장 동료들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기 대상 설 특별자금 300억원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설 명절 특별자금 200억원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원 기간과 대상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0

일까지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이다.

부동산업이나 유흥업 등 대출제한 업종에 속한 업체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연 1.75%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이며 금융기관이 3억원을 더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금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